전주시내 버스노선, 내 손으로 직접

지속가능발전협, '시민·행정·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해피버스' 프로젝트
24일 오후 1시 30분까지 실내체육관 행사장으로 참석하면 현장 접수 가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버스노선에 대해 얘기하고, 시민의 의견이 향후 실질적인 개편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오창환, 이하 전주지속협)는 '시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시민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정인 '시민 버스 노선 디자이너 제1차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사전 접수한 시민 디자이너와 현장 참여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개편에 대한 필요성 설명 △버스 노선에 대한 원칙 정하기 △다양한 노선안에 대한 설명 및 보완사항 토론 △선호도 투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속협은 보다 많은 시민이 노선개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티저 광고와 설문조사 진행 등 사전 홍보 작업을 통해 '버스 노선 시민 디자이너'를 모집, 약 500여명 정도를 사전 모집했다. 시민 디자이너는 학생이나 어르신, 직장인은 물론 각 동별 자생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지속협은 이번 1차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버스노선 원칙과 각 노선 개편안에 대한 보완사항 등 시민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문가 회의와 버스회사, 노동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꾸준한 대화와 회의를 통해 시민 노선안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2차 원탁회의를 통해 버스 노선 개선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속협 관계자는 "이번 1차 원탁회의는 버스 노선과 관련해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노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 디자이너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현장접수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한 만큼 불참에 의한 불평이 아닌 참여에 의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까지 실내체육관 행사장으로 참석하면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 기획팀(010-5034-5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추석 열차표 예매에 줄 선 시민들 호남·전라·중앙선 등의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실시된 21일 익산시 익산역에서 시민들이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가뭄의 단비'

전주 청년쉼표 프로젝트, 올 169명 신청 '큰 호응'
모집인원 72명보다 2배 이상 많아… 시, 사업 개선

전주시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쉼표 프로젝트에 당초 모집인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신청자가 몰려들면서 이 사업이 미래를 설계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올해 청년쉼표 프로젝트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해 추진한 가운데, 최근 마감된 제6기 청년쉼표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에 대상인원(72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69명의 청년들이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원씩 3차례 활동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검사와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신청자가 늘어난 것이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구직기간 장기화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상자 확대, 커뮤니티 운영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미래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를 신청한 청년들은 어려운 점으로 생활비와 심리적 불안을 취업실패보다 많이 언급해 취업실패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심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모두 필요함을 나타냈다.

시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후 오는 9월 11일까지 최종 제6기 청년쉼표 프로젝트 참가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부터 모집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8~39세로 늘리고 연중 모집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으며, 가구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쉼표 프로젝트에 참여해 심리적 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 주민센터와 시립도서관 등 기존 홍보처뿐만 아니라 저단형 게시대·페이스북·대학별 집중 홍보 등으로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장기 실업 및 구직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주시가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라며, "청년쉼표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청년쉼표 커뮤니티인 청년숲, 사업간 연계강화 등 청년들에게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기회의 연계, 사회적·심리적 지지망의 확대 등 사업완성도를 높여 청년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운영된 제4기 청년쉼표의 경우 7월 사업 종료 시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전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했으며, 현재 집단 상담까지 마친 제5기 청년쉼표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관계 역량과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힐링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도내 전지역 호우예비특보, 오늘까지 비 계속

예상 강수량 많게는 150mm 이상… 도, 급경사지 등 붕괴사고 주의 당부

전북도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북 전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표(22일 새벽에 발효)된 가운데, 22일 오후까지 도내에 50~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많은 곳은 150㎜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 및 붕괴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며, 수시로 기상정보를 참고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호우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간계곡 및 하천 둔치주차장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내 2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21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되었다.

이에 전북도는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호우 특보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한다.

한편,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 등 붕괴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전예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여객선 항로는 모두 정상운항 중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도 호우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지 주변을 확인하여, 피해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26일부터 일제정비

전주시, 내달 18일까지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을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명절 연휴를 기준으로 사전정비와 집중정비, 마무리 정비 등 각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7개반 21명의 정비반을 구성,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불법광고물 적발 시에는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불법광고물 상습게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질적 다수·다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가뭄에도 가로수는 '파릇'

전주시, 중앙분리대에 무동력 빗물급수장치 시범 운영
온고을로 전주세무서~전주페이퍼 구간에 20개 설치

전주시가 고사율이 높은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를 살리기 위해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모아 가뭄에 물을 줄 수 있는 가로수 무동력 빗물급수장치를 설치했다.

시는 온고을로의 전주세무서 앞에서 전주페이퍼 앞까지 약 1.3㎞ 구간의 중앙분리대 시설녹지 공간에 총 1200만원을 투입해 '가로수 무동력 빗물급수장치' 20개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과다하게 분포된 도로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나 조경수가 수분 부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곳에 설치된 가로수 무동력 빗물급수장치는 전주지역 업체가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해 특허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은 우선구매 대상 우수 발명품으로, 건축물 지붕면을 이용한 빗물집수가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있는 가로수나 조경수에 돌출된(∧형) 포집체를 이용해 빗물을 효과적으로 모아 급수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하나의 빗물급수장치에는 빗물을 최대 300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어 가뭄시에도 모아둔 빗물을 고사위기에 놓인 가로수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폭풍우 등 바람을 동반한 강우시에는 빗물 포집량이 2~3배까지 증가해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빗물을 집수할 수 있고, 연간 빗물 포집 가능량은 1800~5000리터 정도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낙엽 등 이물질의 경우 경사진 포집체에 미끄러져 지표에 떨어져 포집공들이 막히지 않고 상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강우 시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빗물이 저수조에 집수된다. 분배관을 통해 전달된 저수조 빗물을 부직포가 서서히 흡수해 수분의 손실 없이 나무뿌리에 골고루 직접 공급하도록 설치됐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빗물급수장치의 성능과 효과 등을 모니터링한 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말 안들으면 0점"… 전북대 무용과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이날 오전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교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장학금을 제공한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에 대해 공연출연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 강요가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육부의 고발로 지난해 7월부터 A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평소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0점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 2명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교수는 2015년에도 공연 티켓 강매 등 학생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아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학생 3명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추석 전통시장 화재예방훈련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추석명절에 대비해 21일 군산 영화시장에서 화재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현지 적응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쇠락해 가던 영화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추석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화재 등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상인들의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훈련 전 영화시장 내 숙식자 및 창업점포 구조, 상황대비 진압작전계획 등을 사전 파악했으며, 소방차량 7대를 동원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등을 벌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벌들의 활동 증가로 벌집제거 신고 급증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벌집제거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벌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벌집은 일반주택을 비롯해 상가건물, 등산로 주변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말벌의 경우에는 공격성과 독성이 강해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무진장소방서 관내 벌집제거 출동 현황을 보면 7월 30일 기준 127건이 접수됐으며, 8월 현재 기준으로는 총 248건의 접수로 벌집제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또, 소방서 측에서는 벌집 발견 시 벌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벌에 쏘여 목이 붓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쇼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규 서장은 "벌집 발견 시 직접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안전하게 자리를 피해,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